

민주통합당 호남 경선 후보자 및 단수 후보자

단수후보자 (2개 선거구)
선거구 후보자 대표경력
목포시 박지일(69)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원내대표
여수시 을 주승용(59)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

경선후보자(23개 선거구, 50명)
광주(5개 선거구, 11명)
선거구 후보자 대표경력
서구 을 서대석(50) 청와대 비서관, 전남대 병위 상임교사
이상갑(44)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근로정의대합니 협상단 대표
김명진(48)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병원(59)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호남대 총장
김기정(47) 국회예산정책처장, (재)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이형석(50)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 위원
임내현(59) 정통주거위원회 부위원장, 전 광주교과장
북구 을(3인) 최경주(51)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최경환(51) 청와대 비서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
김동철(56)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순천대학교 비서실장
전갑철(55) 16대 국회의원, 민선4기 광산구청장

전남(8개 선거구, 18명)
선거구 후보자 대표경력
여수시 갑 김성근(59)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여수비밀회지침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49) 서울대학교 졸업, 여수시교육장보조실의위원
김영호(52)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순천대 사범체육학과 겸임교수
순천시 곡성군(9인) 노관규(51) 대검중앙수사부 검사, 민선 4-5기 순천시장
이순석(51) 한국일보 광주본부 사남취재팀장,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나주시 회순군 박선원(49) 대통령 전략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배기운(61) 한국보훈복지공단 이사장, 제16대 국회의원
고흥·보성군 김승남(45) 87년 전남대총학생회장, 광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장
정성진(48) 장성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의원
정흥·강진·영암군 국영애(51.04)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전남도의회 의원
황주홍(60) 민선 3~5기 강진군수, 건국대 정외과 교수
해남·원도·진도군 김명복(57) 제 18대 국회의원, 강진·원도 군수
박광호(54) MBC 보도국장, MBC 100부토론 사회자
무안·신안군 서상석(52) 민선 3~5기 무안군수, 민주통합당 중앙위원
이은석(51) 제14대 전라남도 도의의장, 제18대 국회의원
이내연(59)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
담양·함평·영광·장성군(9인) 이석형(53) 함평군수, (사)말밭농민회 총재
이개호(52)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민주당 중앙위원

전북(10개 선거구, 21명)
선거구 후보자 대표경력
전주시 완산구 을 이상직(49) 이스타항공회장, 어린이 구호 단체국회의원자선은행 대표
최형재(48) 전주이름다운가게 공동대표,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성자(47) 전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장, 민주화운동관련대상자
이재규(49)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전국 혁신과통합 정치혁신위원장
* 유종일 후보자는 전라후보자로 선정하고, 수도권지역에 전락공천기로 함
군산시 김관영(42) 김안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재정경제부 사무관
함윤경(47) 군산 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삼인민주위원장
이준석(48)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익산시 갑 함병도(44) 17대 국회의원, 함병수 당대표 정무특보
익산시 을 전정희(51.04) 전북대학교 겸임교수, (사)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
조배숙(55.04)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김형욱(48) 청와대 비서관, 한영숙 국무총리 민정수석 비서관
정읍시 장기철(52) KBS 법조팀장, 18대 국회의원 후보
남원시 이강래(58)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민주당 원내대표
순창군 이홍호(51) 국무총리공보정책비서관, 남원순창지역위원장
김제시 김중희(46) 일광대학교 한의과 겸임교수, 학생강학연구회 이사장
완주군 최규성(62) 17·18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초대 사무총장
진안·무주·장수 임실군(9인) 박민수(47) 전 민변 전북지부 회장,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안호경(46) 전북참여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안영두(60) 소송·사선문화재단위원장,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
고창·부안군 강병원(40)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청와대 행정관
김춘진(59) 17·18대 국회의원,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민주 호남 물갈이 ... '무소속 쓰나미' 예고

경선 추가 탈락 뎀 50% 넘을수도
관료출신 대거 탈락... 후유증 클 듯

민주통합당의 텃밭인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공천 혁명의 바로미터였던 만큼 물갈이의 폭도 컸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내비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탈락자들은 재심 신청의 시를 밝혔지만,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지도부 사과 등 공천 요인을 문 제삼고 있는 만큼 원만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호남 물갈이가 향후 당내 무소속 이탈 흐름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호남 물갈이 폭 50% 넘을 듯= 당 공심위는 이날 광주와 전남·북 30곳 선거구 중 2곳(광주시 동구·무곡천, 정읍·무소속)을 제외한 28곳의 공천을 결정했다. 이중 6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했으며, 단수 후보로 선정된 지역구는 4곳뿐이다. 또 현역 의원이 경선 대상에 포함될 지역구는 총 12곳으로 추가 탈락 가능성을 남겼다. 경선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추가로 탈락할 경우 호남 물갈이 폭은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탈락자 강력 반발=이 같은 호남 물갈이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3차례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 배제, 친노·486 인사 득세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강봉균·최인기·조영택·신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공천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공천 심사가 진행하도록 한 한영숙 당 대표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특정 세력이 심사 전부터 누구를 탈락시킬지 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상황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당 공천 회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관료출신 대거 낙마=이번 공천 결과의 특징인 관료출신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당내 일각에선 지난 총선에 비해 공천 심사 배점 중 정책성 비중이 커지면서 상당수 관료 출신 의원들의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료 출신들이 대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온 점 때문이다. 탈락한 현역 의원 6명 중 관료 출신은 4명. 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최인기(행정자치부장관)·조영택(국무조정실장)·신건 의원(국가정보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정책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정책성의 기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용 못해' 민주통합당이 호남권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로 상경한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공천탈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탈락 '다면평가'가 결정적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5일 4·11 총선 공천에서 최인기·김영진·강봉균·김재균·신건·조영택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탈락시켰다.

당 공심위는 해당 지역구에서 교체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앞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심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총선거획단 심사 자료와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교체론이 높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는 지역구민들의 목소리를 높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 의원들이 서로 점수를 매긴 다면 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공심위

는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심사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다면 평가 비중을 크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공천 결과 발표에서 "정책성 기준이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면 평가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며 저조한 다면 평가 점수가 이번 탈락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천 보류' 들끓는 광주 서구 갑

"지역민심 거스르지 말라"

"공심위 흔들기 중단하라"

민주통합당이 5일 광주·전남지역 공천자와 경선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 서구 갑 선거구만 경선후보자 발표를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선후보자 결정과정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장관과 박혜자 호남대 교수 2명을 경선 후보로 정해 최

고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 등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1등인 송갑석 후보를 배제하고 여성후보 2명만 경선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혁적인 40대 후보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광주·전남에서 일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 여성 후보의 경쟁력 문제 제기과 함께 민심 추이를 보고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광주 서구 갑은 장 전 장관의

전략공천설이 떠돌았다. 하지만, 전략공천에 따른 지역 민심의 반발과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의 등장에 대한 불안감 등 때문에 결국 지도부가 심사숙고 끝에 경선후보 선정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서구 갑 공천을 놓고 전략공천과 여성공천 지역 등 지도부가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 후보 경쟁력 문제와 함께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 등을 우려해 경선 후보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선 전 백양사 주지 등 광주시민사회 대표 및 원로 18명은 이날 "젊고 개혁적인 정치신인을 국민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천혁명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성 공천비율을 인위적으로 채우기 위해 광주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하진 예비후보 측은 "공심위의 호남 공천 후보자 결정은 민심을 반영한 변화와 개혁 공천"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이인영 최고위원은 공심위 흔들기를 중단하고, 공심위의 심사 결과에 승복하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서구 갑 선거구를 보류지역으로 결정할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중앙당에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두근보자 반발 무소속 출마 공천탈락 탈락
무서워서 개구리도 못 나올판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스마트 금융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은행 최초, 웹어워드코리아 2012 최고대상 수상
1등 은행이 앞서 가야 국민의 금융생활도 앞서 갑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KB국민은행, 스마트 금융에서도 앞서 가겠습니다.
WEB AWARD 8th GRAND PRIZE
웹어워드코리아 2012 최고대상 수상
웹어워드 코리아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행사로, 오픈뱅킹 기반의 KB국민은행 홈페이지가 총 13개 부문 487개 홈페이지 중 전체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